



4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고 상 역 수의사

(주)선진브릿지랩

매년 4월이 되면 양돈장들은 추운 계절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일부 농장들은 2, 3월에 설사병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은 곳들이 많을 것이다. 날씨가 풀려도 곳곳에 양돈장의 적들이 많이 존재한다. 높은 일교차와 강한 바람들이 항시 존재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여쁜 돼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아래에 몇 가지 중점 관리사항을 적어 보았다.

1. 모돈 관리

교배 후 임신 모돈에 대한 사료급여를 통해 모돈의 체평점이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모돈이 적정 체평점을 임신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자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허약 자돈의 발생을 적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관리의 수월과 자돈 육성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모돈이 분만 후 포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임신 기간 중 유지한 체평점에 기인하므로 임신 모돈에 대한 사료급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포유 모돈에 대한 사료 급여도 중요하므로 소홀해

서는 안된다.

또한 모돈에 대한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환절기 호흡기 질병 발생을 억제하며 모돈에서 자돈으로의 수직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절기에는 기본적으로 급여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농장내 질병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모돈에 대한 투약은 사료톤당 CTC 500ppm으로 질병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봄은 구충의 계절이다. 번식돈군에 대한 구충제 투약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겠다. 내·외부 기생충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일괄접종 또는 첨가하여 기생충들을 박멸해야 한다.

2. 자돈 관리

자돈이 태어나면 초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초유의 섭취여부 및 양에 따라 자돈의 면역력에 차이가 생기므로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분만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모돈의 유방상태를 매일 확

〈표 1〉 사육단계별 적정온도

구분	체중	전입시 온도	전출시 온도	권장 일교차
포유자돈	1~7kg	30℃	30℃	0℃
이유자돈 1	7~15	30	24	1
이유자돈 2	15~25	24	21	1.5
육성돈	25~50	21	20	2
비육돈	50~110	20	18	2.5
성돈				
수유모돈		18	18	1
스틀수용		18	18	2.5
군사		16	18	2.5

인하여 유방부종이나 무유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군은 추위 스트레스(돈사의 온도가 저하될 때)를 받으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질병에 이환되기 쉽다.

4월은 외기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음지와 양지의 온도 차이가 크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강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자돈들이 추위에 노출이 되지 않게 보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돈사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신생자돈과 포유자돈, 그리고 이유자돈에서 주로 온도에 연관된 문제가 발생되므로 분만사와 이유자돈사에서의 온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표 1〉사육 단계별 적정온도)

돈사의 온도 유지시 다음 사항도 주의해서 온도를 관리

해야 한다. 돈방당 수용 두수를 적게 할 경우, 사료를 제한급여할 경우, 돈사내 풍속을 빠르게 할 경우, 돼지가 젖었을 경우 등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돈사의 온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어린 일령의 자돈을 수용하는 돈사에서는 셋바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풍속이 증가할 경우 체감온도가 저하되므로 돈사 내부의 풍속이 최대 1m/초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바람의 움직임이 피부에 감지가 되면 바람의 세기는 1m/초를 넘

4월은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는 시기이다. 농장내 상재하는 호흡기 질병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질병에 대한 예방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자돈을 위한 것이므로 분만전에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초유 항체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분만 2주 전에는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하절기 모돈의 번식성적을 위하여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1차 접종은 4월 중순경, 2차 접종은 5월 중순경으로 설정하여 번식돈군(후보돈 포함)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환절기 자돈관리는 돈사내 낮과 밤의 온도편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돈사의 보온 덮개나 난방기구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환절기 때 온도유지시 주의할 점은 일교차이다. 돈사내 낮과 밤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직은 돈사의 보온 덮개나 난방기구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온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3. 예방백신 접종

4월은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는 시기이다. 농장내 상재하는 호흡기 질병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질병에 대한 예방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자돈을 위한 것이므로 분만전에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초유 항체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분만 2주 전에는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자돈의 예방접종은 질병의 발생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접종 백신 및 백신 투약시기 조정은 가까운 수의사의 자문

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하절기 모든의 번식성적을 위하여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1차 접종은 4월 중순경, 2차 접종은 5월 중순경으로 설정하여 번식돈군(후보돈 포함)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4. 발생 질병의 치료

질병의 발생 강도에 따라 급성형, 아급성, 만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절기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은 대부분 급성형이 대부분이다.

급성형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의 경과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에 이환된 개체들은 활력이 떨어져 사료와 음수 섭취가 매우 낮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약제를 사료나 음수에 타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발병돈사 단위로 수용되어 있는 모든 돼지에게 주사처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질병의 병원균에 감수성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근육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돼지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사료 첨가나 음수투약을 하여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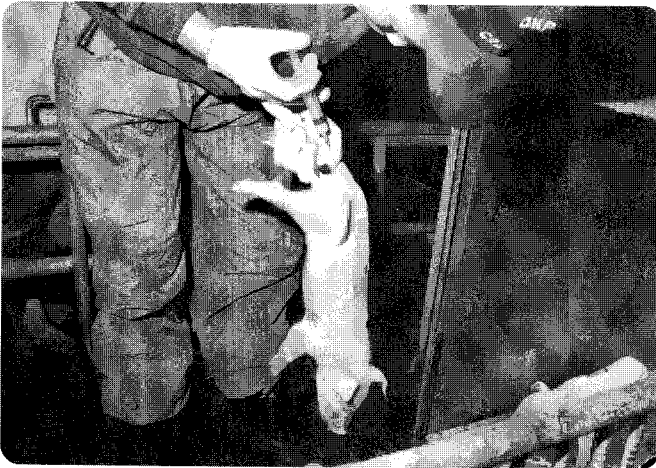
질병에 이환은 되지 않았지만 질병이 발생된 돈사에 함께 수용된 돼지라면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투약, 치료해야 한다.

치료 기간은 주사 치료를 3일간 실시하며, 그 후 음수투약을 7일간 실시하던지, 사료 첨가를 10~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약품 투약을 가져가야 한다.

주사제와 첨가제는 동일한 약제로 하여야

〈표 2〉 음수투약 용량 계산

<p>1 일 체중 kg당 투여량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음수에 첨가해야 할 약제의 양. 1일 투여량 = {권장량(mg/체중 kg) × 두수 × 평균 체중} / {10 × 함량(%)}</p>
<p>예) 체중 50 kg 되는 돼지 200두에 어떠한 약품을 체중 kg당 40mg 의 비율로 음수 투약하는데 약품의 함량이 10%라면 1일 첨가해야 할 약품의 양. 필요한 약품량(g) = (40 × 200 × 50) / (10 × 10 %) = 4,000g(4kg)</p>



▲자돈의 예방접종은 질병의 발생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접종 백신 및 투약시기 조정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한다. 약품을 첨가할 때 사료 투약 용량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음수 투약시 약제의 농도 계산은 눈대중으로 대부분 농장에서 투약 하고 있다. 음수투약 용량의 계산은 〈표 2〉와 같다.

위에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 보았다.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그 질병을 치료하려

면 비용의 증가와 많은 노동력을 소진하게 된다. 또한 사랑스런 돼지도 많이 잃게 되어 농장 운용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책이다. 농장의 정기적인 소독과 돼지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농장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다 적절한 예방백신 접종이 더해지면 환절기를 무사히 넘겨 농장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환절기 질병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단지 농장 관리시 미흡한 점

이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게 되어, 돼지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에 이환된다. 따라서 평상시 돼지를 잘 양육하였다면 환절기에 다발하는 질병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내 농장의 환경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양돈**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